



전력산업 기술정보

대한전기협회에서는 외국자료를 수집하여 한국전력 전력연구원 전력정보센터에 제공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외국의 전기기술 및 전기 동향에 대한 자료를 관심있는 전기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.

자세한내용은 전력정보센터의 해외저널 기술정보(www.epic.or.kr)를 참고하기 바랍니다. <편집자 주>

21세기에 접어들어 세계 각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중 하나는 경제와 에너지 및 환경문제를 밸런스를 취하면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. 이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라 할 수 있으며, 에너지 공급의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원자력발전이라 할 수 있다. 이에 대한 해외 각계의 의견을 알아본다.

01

지구 온난화
대책이 나아가야
할 방향

교토의정서(The Kyoto Protocol=京都議定書=교토기후협약)란 1992년 6월 리우 유엔환경회의에서 채택된 기후변화협약(unfccc)을 이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간 이행 협약을 말한다. 협약내용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55%를 차지하는 선진 38개국들은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2012년까지 90년 수준의 평균 5.2%이상을 줄여야 한다.(2001년 온실가스 감축규모가 5.2%에서 1.8%감축으로 축소됨)

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교토의정서에 서명함으로써 동 의정서가 2005년 2월 16일에 발효되었다.

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가로 분류되어 감축의무가 면제되었으나 우리도 언제까지나 먼 나라 일로만 볼 수 없는 현실이다.

» 자료출처 : 일본전기협회보

02

재생 가능
에너지 100%를
지향하는 섬
(덴마크 삼소섬)

삼소섬은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에서 철도로 약 2시간, 섬의 서쪽 끝에 있는 칼룬보그(kalundborg)까지 연락선으로 2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다. 면적 114km², 인구 4,400명 정도의 작은 섬이다.

이 작은 섬이 지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. 섬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모두 재생가능에너지로 충당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그 목표를 하나씩 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. 삼소섬의 계획은 2007년까지 섬 전체에너지의 35%를 풍력발전이나 태양열, 바이오매스 등의 재생가능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으로 시작했다. 그러나 이미 총발전량 2,700만kWh의 풍력발전소 11기가 가동되어 섬 내의 전력소비 거의 100%를 충당하고 있다. 또 짚, 나무토막과 같은 바이오매스, 태양

열 등에 의한 4개의 지역열 공급시스템이 가동되어 섬 내 주택 등 60%의 열수요를 충당하고 있다.

또한 섬 시찰에 사용하는 차량은 채종유를 사용하는 「자연에너지 차량」이다. 원만한 언덕길을 팝콘 튀길 때와 같은 고소한 향이 나는 채종유차로 달린다. 차 내부에도 향이 퍼져 유쾌한 소풍 같은 기분이 든다고 한다.

우리나라도 제주도를 이렇게 만들면 어떨까하고 생각하여 본다.

» 자료출처 : 일본전기협회보